

壬辰亂時 朝鮮支配層의

對明意識

— 內附의 問題에서 본 —

崔 韶 子

I.

朝鮮의 對明關係는 壬辰倭亂을 계기로 그 양상을 크게變化시켜 나가 고 있으며 朝鮮에 대한 明朝의 壓力역시 이亂 이후 더욱 加重되고 있다. 이러한 朝鮮의 對明關係의 變遷은 그 연유가 壬辰倭亂時 明이 朝鮮을 도왔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勿論 이때 明朝가 朝鮮에 軍事力을 과견하여 倭亂진압을 도왔지만 明의 出兵은 形式上은 朝鮮의 要請을 받아 協助한 것이지만 實質的인 面에서 볼때 倭의 明朝侵入을 방지하기 위한 즉 中國本土를 倭亂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自衛的인 것에서 出發한 것이고 明의 出兵을 誘導한 것이 內附의 問題였다^①.

故로 本稿에서는 明의 出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誘導한 所謂 內附라든지, 그 이전의 請援의 問題를 通하여 倭亂初의 朝鮮支配層의 對明意識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다루기를 피했던 이 問題는 亂初 朝鮮의 對明關係를 理解하는데 주요한 부분이며, 또 自主意識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재이기도 하다. 그러면 軍事를 要請하면서 遼東으로 건너 가겠다는 相反的인 請援과 內附의 問題에서 朝鮮人의 對明意識을 알기 위하여 內附의 問題가 一般의 醜評받고 있듯이 棄國論으

로만 받아들여 질수 있을런지, 좀더 具體的으로 어떠한 過程을 통하여 이 問題가 대두되었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살피고 當時 이러한 問題와 관련된어 등장하는 몇몇 지도층人物의 對明意識을 파악하므로써 自主意識의 理解를 위한 試論을 삼고저 한다.

II.

— 內附(宣祖가 遼東으로 건너가겠다는 渡遼之計)의 問題를 다루기에 앞서 相反되는 請援의 論議가 언제 나왔는지는 朝鮮人의 意識構造를 파악할 수 있는 공통적인 問題이므로 言及하고자 하야 할 것 같다.

一五九二年 四月 日本의 朝鮮侵略이 시작된 이후 朝鮮이 遼東에 咨文을 보내어 의례적인 報告를 하는 이외에 어떤 狀況下에서 明朝에 求援을 要請하였는지는 주요한 문제이다.

即 國家滅亡의 위기에서 最後의 수단으로서 인지, 또는 假道入明을 내세운 日本의 威勢에 눌려 미리 自衛가 不可能한 것으로 豫定하고 도움을 請하려 한 것인지, 또한 日本의 侵略을 對明征伐의 前提로 보고 朝鮮의 軍事力만으로 防禦하기에 앞서 의당히 明의 원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豫定하고 求援을 요청한 것인지 등의 몇가지 可能的 前提下에 宣祖를 中心으로한 支配層의 의식구조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朝鮮의 朝廷이 明에 求援을 要請하는 案을 내는 것은 다음과 같다. 四月二六日 尙州의 敗報에 이어 二九日 忠州敗報가 傳해지자 宣祖는 西幸의 計를 決定하였고 大臣들은 車駕를 잠시 平壤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明朝에 請兵하여 回復을 피하고자 하였다^②. 그러나 이때에도 掌令 權恢은 京城 固守를 請하였고 柳成龍은 勤王의 兵을 모아 回復할 것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五月一日 東坡館을 떠나면서 備邊司에서 遼東에 移咨를 보내 請援할 것을 啓請할때 上下가 憂惶하여 定計를 갖지 못하였는데 이때 李恒福이 홀로 말하기를 지금 八路가 潰裂되어 收拾을 바랄수 없게 되

있다고 하면서 명나라에 報告하고 求援兵을 請하여 요청을 바라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어떤 이는 명나라가 무엇때문에 출병을 하겠는가 하였으며 明軍이 온다하더라도 遼東 廣寧의 兵馬를 보내올 것인가 遼廣兵은 胡隄類니 반드시 업신여기며 횡포하게 굴 것이다 하였으나 結局은 李德馨과 李恒福이 合하여 드디어 朝堂大臣과 다투어 宣祖는 請兵을 요청하게 되었다③.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求援要請의 論議는 西幸을 決定하였을 때 이미 舉論되었으나 平壤(宣祖의 留駐 五、二一六、一一)에 와서 具體化되고 臨津의 敗報로 決定된다. 그리고 柳成龍이나 尹斗壽같은 大臣은 朝鮮으로서 防禦해야 하며, 軍事力을 모집하여 보충하여야 된다는 案을 가졌던 反面 李恒福, 李德馨의 경우 이미 京城을 떠나며 請兵에 대한 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西幸을 決定할 때 請兵의 論議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國家滅亡의 절박한 위기에서라기보다는 사전에 明의 協助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問題를 주도한 李恒福이나 李德馨의 경우 어떻게 評할 수 있을런지는 IV에서 言及하고자 한다.

III、

倭亂의 진압을 도울 軍事를 要請하면서 자신이 遼東으로 건너가겠다는 宣祖의 計劃(內附—渡遼之計)은 나라를 버리려는 처사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兪繼 構想되고, 어떠한 過程을 거쳐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지니는 意味는 어떠한 것인지 등을 밝히므로서 支配層의 對明意識이 좀더 구체화 될 것이다.

內附의 문제가 表現되는 것을 보면 宣祖가 東坡館을 떠나면서 諸臣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李恒福은 義州로 가서 事勢가 악화되면 天朝에 호소할 것을, 尹斗壽는 咸鏡道로 北行할 것을, 柳成龍은 大駕가 東土를 一步라도 떠나면 朝鮮은 우리所有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宣祖가 이때 內

附의 뜻을 言及하자 柳成龍과 李恒福間에 爭辨을 반복하였는데 柳成龍은 勤王의 軍事에 기대를 걸었고 李恒福은 앞서의 말 때문에 어찌 가법게 나라를 버리겠느냐고 李山海로 부터 비판도 받았다④. 그러나 이 問題는 그후 請援使로 派遣되는 柳夢鼎과 宣祖와의 대화에서 보면 四月初五月初 請援의 문제와 함께 構想은 되었으나 왜 잠시 보류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宣祖와 柳夢鼎의 대화를 보면 宣祖가 夢鼎에게 「내가 北京에 가면 먼저 內附의 뜻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였을 때 夢鼎은 「明朝에서는 우리를 의심하고(賊을 嚮導하지 않나), 賊을 의심하는데 만약 軍事를 請하지 않고 內附를 먼저 請하면 그 후이 더 커질지 두렵습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遼鎮에 曷를 갖추어 請援한 후 內附의 말이나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⑤. 따라서 宣祖는 이미 內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請援問題가 다루어진 이후에 제의하기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그러면 이와같이 宣祖의 意中에 있는 이 問題는 그후 어떻게 發展하였으며 이에 대한 朝臣들의 見解는 어떠한지.

이 內附의 問題는 形勢를 觀望하면서 去就를 決定하기로 하고 寧邊에 六月 一三日 도착하면서 다시 論議되고 있다. 當時 宣祖는 多少는 北行(咸鏡道로) 할 뜻도 없지는 않았으나 世子와 더불어 나누어 갈 것(分朝之策)을 發表하였는데 이때 承旨 李颯은 「上國은 父母之邦이니 마땅히 義州로 가서 天朝에 呼訴하고 일이 만일에 不利하게 되면 君臣이 함께 압록강에 들어가 天下의 大義를 외침이 좋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柳成龍과 李恒福이 이 案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때 王은 遼東으로 건너가게 된다면 諸臣들 가운데 누가 따르겠느냐 하니 李恒福과 李颯이 대답하였다. 特히 李恒福은 「곧 義州로 가서 中朝의 軍事를 迎接하므로써 萬一을 도모하여야 되며 만약에 不幸하거든 君臣上下가 中朝로 들어가서 內附를 請하고 친척히 事勢를 보아 再學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읍니다」라고 宣祖에게 請對하고 李德馨과 함께 利害를 알리니 宣祖는 「나의 뜻이 본래 內附에 있었는데 卿들의 말이 이와 같으니 可히 義州로 갈 것이로다.

다만 內殿이 이미 北道로 向하였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오」라고 하였다⑥. 그러나 이날 內附의 問題를 가지고 宣祖와 朝臣間에 論議가 있었는 데 이때 領議政 崔興源는 遼東의 人心이 極險할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李 颺은 明朝가 許用할찌, 鄭澈은 人心을 해체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으며 鄭忠謙의 問議에 대하여 宣祖는 內殿妃嬪은 신백하여 帶去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면서 「內附를 하는 것은 亂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며 安南이 滅亡하였을 때 스스로 入朝하여 明朝가 軍事를 보내 復國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⑦. 그리고 宣祖는 「父子가 다 압록강을 건너면 나라에 주인이 없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世子에게 宗廟位牌를 받들고 따로 江原, 京畿道等地에서 進주해서 喪의 軍事를 모아 수복하기를 命하였는데⑧ 宣祖로서는 一三日에 內附에 대한 本人의 뜻을 決定하고 分朝의 方案이 마련되었던 것 같다. 이어서 다음날 宣祖는 廟社를 받들기를 命하고 分朝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諸臣들을 불러 의논하기를 누가 함께 遼로 건너 갈 것인지를 물었을 때 李恒福만이 應하여 宣祖는 恒福에게 밖에 나가 따라 갈 사람을 모집토록 하였는데 承旨 洪進, 吏曹 參議 李颺, 武臣 韓淵 三人이 응모하였다⑨.

그후 一六일에 行次가 嘉山에 이르러 咨文을 遼東에 보내어 內附를 請하고, 定州, 郭山으로 向하였는데 宣祖는 柳成龍을 불러 이 行次가 明에 內附하기 위한 것이니, 먼저 가서 만일 明나라 사람이 오는 것을 만나면 먼저 敵情을 말하고 그 뒤에 遼東에 건너 가겠다는 뜻으로 전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兪庭에서는 尹斗壽의 간곡한 저지권유도 있었으나 宣祖로서는 義州로 가서 遼東으로 건너갈 뜻을 굽히지 않았다⑩. 明으로서도 전혀 宣祖一行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朝鮮의 倭를 嚮導할찌 모른다는 不安, 不信 등으로 宣祖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宣祖는 不安한 상태에서 諸臣들 특히 尹斗壽나 柳成龍 등의 反對에 부딪치고, 一般朝臣間에 알려져 敵勢를 보아 碧潼을 거쳐 薛罕嶺을 넘어 오히려 咸鏡道로 갈 것을 권유하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二六에 遼東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義州에 머물것을 決定하게 되었다⑪.

內附에 대한 以上の 狀況을 볼때 請援에 比하여 앞서 구상되고 寧邊에서 具體化되어 遼東으로 咨文을 通해 보내진 內附의 問題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 點은 단순히 宣祖一行의 渡遼計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 案에 적극 찬성을 하였고 이 일을 주도하였던 李恒福의 表現을 빌리면 內附는 서서히 復國을 試圖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宣祖 역시 寧邊에서 安南의 경우를 例로 들어 明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일단 入朝하여 다시 再起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世子一行은 宗廟位牌를 받들고 勤王의 軍事를 일으켜 收復을 꾀할 것을 宗용하였다. 宣祖가 一部 家族과 大臣만을 데리고 內附하려던 것은 이 역시 李恒福의 表現을 빌리면 兩宮이 만약 같이 一處로 간다면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므로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點들과 宣祖가 처음부터 內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倭亂이 明朝가 의식하고 우려하였던 것과 같이, 勿論 구실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明을 의식하고, 明朝때문에 일어난 戰爭이기에 처음부터 明朝와 연결을 가지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V,

以上の 請援과 內附의 問題를 볼때 宣祖의 측근에서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人物은 李恒福, 柳成龍, 尹斗壽, 李德馨 등과 그밖에 崔興源, 鄭澈, 沈忠謙, 李颺이 있다.

이들 중 앞서의 問題와 관련하여 對明유대를 적극 이용하여 明의 協助을 얻으려 한 人物이 李恒福이며, 그의 故友인 李德馨이 이 일에 同調하고 있다. 그리고 되도록 明에 依存하지 않고 朝鮮軍으로 防禦하려고 노력한 人物이 柳成龍이다. 이러한 諸臣들의 對明意識은 어떠하였는지 肯定, 否定하기에 앞서 當時의 政세를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먼저 李恒福의 경우를 보면 그는 「亂後時事를 論하는 劄」에서 「……倭가 감히 中國을 엿보지 못하는 것은 朝鮮으로서 울타리를 삼은 까닭이고 浙江一

로 해서 바다친리를 건너는 것은 길이 먼데다 中國에 防備가 있고, 우리 나라를 얻어서 經營하면 順風에 하루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 가령 秀吉이 지혜있는 자라면 朝鮮은 반드시 다룰 땅입니다……⑫」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壬辰亂때 明이 가장 우려하고 항상 危機意識을 가지고 不安해 하던 것이 朝鮮에서 바다를 通해 首都圈(北京)에 육박해 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한다면 李恒福의 行動等은 비판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明側의 의도를 정확히 예정한 人物임을 알 수 있으며 그의 對明接近策은 明의 協助를 얻기 위한 것으로 그를 實質的인 現實的인 人物로 긍정할 수 있는 소지도 다소는 있다. 아울러 그와 比較的 親분관계가 컸던 李德馨은 請援使로 當時 活動도 컸으며, 明將 楊鎬나 劉繩이 그의 銳氣와 才能에 탄복한 일이 있다 하겠다. 또한 그가 倭와 대화한 것을 보면 「日本이 만약에 中原을 犯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왜 浙江으로 向하지 않고 朝鮮으로 왔느냐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를 滅하려는 계획이다……⑬」라고 힐난하였는데 이것은 明에 朝貢하기 위한 것이니 길을 빌리라는 日本의 구실을 直視한 것이며, 이러한 日本의 구실이 明의 원조를 求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본 것이다.

한편 되도록 援軍이나 協助를 求하지 않고 國內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柳成龍의 경우 徵戡錄이나 西厓文集에서 亂中에 그의 態度、行動을 엿볼 수 있는데 그는 請援이나 內附의 問題와 관련하여 明에 協助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朝鮮 땅을 한 치라도 떠나면 倭 난국타개의 길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여 「朝鮮 땅을 한 치라도 떠나면 朝鮮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後日 趙月川에게 보낸 글중에 「……능히 왜적을 도모할 만한 힘이 없으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길로는 中國의 羈縻하는 계획에 따르는 척하여 敵軍의 勢力을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안으로는 전투 방비의 준비를 갖추어서 친척히 뒷날을 도모하자……⑭」고 하고 있다. 이러한 表現을 보면 柳成龍 역시 內附의 問題에는 강력한 反對의견을 폈으나, 儀禮的인 面에서 보였던 對明親近策의 一面을 理解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밖에 尹斗壽의 경우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의 태도 역시 一貫되지 않아 취급치 않았다.

V.

結論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朝鮮은 明朝에 請援의 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한 內附의 問題를 만든 과정에서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으며, 理解할 수 없는 側面도 있었다. 특히 宣祖의 請援이나 內附의 案이 서울을 떠나기 以前에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비판의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바로 그 점이 또한 倭亂의 性格을 파악하고 明을 誘導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이러한 宣祖의 意中을 적중하여 明에 接近하여 明朝의 介入을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 人物이 李恒福 등이 아닌가 생각한다.

勿論 이것은 하나의 試論이지만 만약 이 時期의 全般的인 問題를 통하여 이러한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自力으로 自體防禦를 하지 못했다는 點에서는 問題點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고 明朝의 協助를 구하는 方法論에 있어서 또 結果적으로는 問題點을 가지고 있으나 宣祖나 李恒福 등의 주변 大臣에 대한 評價는 再考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註〉

- ① 拙稿 「壬辰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一)」派兵의 背景과 軍事活動에 대한 評價」- 東洋史學研究 第十一輯、一九七七、pp. 六三—九八.
- ② 宣祖修正實錄 卷二六、六〇(以下 修正實錄에서 日字가 正화하지 않는 경우 日字로 表하겠음) 한편 李肯翹 燃藜室記述 卷一五「宣祖朝故事本末」壬辰亂 大駕西狩條에서는 白沙年譜、日月錄等に 依據하여 서울은 떠나면서 宣祖가 李山海 柳成龍 尹斗壽等에게 계책을 물었을 때 李恒福이 먼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원래 약해서 적을 당할 도리가 없으니 지금 계책은 오로지 서쪽으로 떠나라에 하소연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하니 임금도 내 뜻이 본래 그렇다고 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③ 宜祖修正實錄 卷二六、宜祖二五年 五月朔 庚申條。 그러나 李肯翊의 上揭書 卷一六 「宜祖朝故事本末」 求敕明朝收復京城條에서는 역시 白沙集에 근거하여 五月 十九日 서울을 지킬수 없게 되니 臨津을 거점으로 수비하면서 이 案이 나왔고, 앞서 遼東 廣寧軍에 대한 否定的 見解는 尹斗壽의 案이라고 하고 있다.

④ 宜祖修正實錄、上 同

⑤ 上 同、卷二六、10 p

⑥ 李肯翊、上揭書、卷十五、「宜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條

⑦ 宜祖實錄 卷二七、宜祖二五年 六月 辛丑條

⑧ 李肯翊、上 同

그러나 中村榮孝의 「日鮮關係史の研究」 p. 一四九에서는 五月 二十九日 派遣된 柳夢鼎을 통하여 內附의 뜻이 明에 傳해졌다고 하나, 앞서의 柳와 宜祖와의 대화나, 諸臣과의 寧邊에서의 의논이나, 이 問題가 遼東을 통하여 明朝에 傳達되는 過程을 보면 적어도 五月에 이 뜻이 明朝에 傳達되었다고 보고는 어렵다.

⑨ 宜祖修正實錄 卷二六、一七 p

⑩ 內附의 案이 明朝에 傳해 지고, 明朝廷이 이에 대한 反應을 보인 것은 註一 參考

⑪ 宜祖實錄 卷二七、宜祖二五年 六月 庚戌 辛亥、壬子條

⑫ 李恒福 白沙集 卷五 割 「亂後論時事割」

⑬ 宜祖實錄 卷二七、宜祖二五年 六月 丁酉條

⑭ 李肯翊 上揭書 卷一七、「宜祖朝故事本末」 丙申倭兵撤還條

(梨花女子大學校 助教授)